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함의에 관한 시론 : 종전 80주년의 현재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 강 경**

• 요 약 •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국제연합(United Nations)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역사적으로 전후 ‘행위로서의 전투’는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으며, 그 결과 신냉전기로 접어든 오늘날까지 ‘상대로서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사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주요 국면사(局面史)였으며, 동시에 전쟁의 결과가 20세기 이후의 국제질서와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구조사(構造史)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이해하고 미래전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복기(復棋)해야 할 ‘살아있는 역사’이며, ‘현재사(現在史)’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건국과정과 6.25 전쟁, 분단체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구조사로 작동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함의를 현재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의 구조사적·현재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추체험해야 할 안보적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주제어 : 제2차 세계대전, 추체험, 구조사, 국면사, 현재사

I. 서론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World War II)이 종전되고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이 창설된 지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세기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

* 본 연구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74424).

**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군사학 박사

쟁으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일본 등 주요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들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6년 간의 장기전이 종료되었고, 동시에 제국주의 질서의 붕괴를 가져왔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聯合國, allied Powers)들이 전후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이념적 대립구조는 약 40년 간의 냉전체제와 탈냉전을 거쳐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형성했다. 그 결과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지대(hot spot)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제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인 슈미트(Carl Schmitt, 1888~1985)는 “전투는 끝나도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관점을 근거로 이른바 ‘행위로서의 전쟁’과 ‘상태로서의 전쟁’을 구별한 바 있다.

슈미트는 적(敵)을 전쟁상태의 명백한 전제로 규정하였고 ‘행위로서의 전쟁’과 ‘상태로서의 전쟁’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¹⁾ 행위로서의 전쟁(war as an act)은 전투 및 군사작전과 같이 적대성이라는 행위 안에 적이 가시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상태로서의 전쟁(war as a state)은 직접적인 전투행위와 참여한 적대행위가 종결되었지만 여전히 적이 존재하여 갈등의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슈미트는 “어떤 전쟁도 단순하게 직접적인 교전행위로 해소될 수 없으며, 행위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슈미트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행위자 간에 벌어지는 전쟁에서 ‘적대행위가 정지된 상태로서의 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역사적으로 개관해 보면, 냉전 이후 현재까지 ‘적대행위가 상존하는 행위로서의 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특히,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는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천안함 폭침사건 등 ‘적대행위를 수반하는 상태로서의 전쟁’도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전후 국제질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냉전질서가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학자인 이삼성은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 질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군사적·정치적 갈등 및 동맹의 구조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²⁾ 전후 유럽에서는 약 40년 간의 냉전체제가

1) 칼 슈미트, 김효전·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퍼주: 살림, 2012, pp.146-147.

2) 이삼성,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4호, 2006년 겨울호, p.43. 이 논문에 따르면, “냉전시대에 동아시아와 유럽은 모두 분열과 대립의 질서였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유럽은 경제적 통합을 심화시켰고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확장을 통해 전유럽의 군사외교적 통합의 양상까지도 띠고 있다. 반면에 동아시아는 여러 수준에서 갈등과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곧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고유성이라는 문제를 던지는 것이며, 우리는 그 구조를 해명해내야 할 숙제 앞에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너진 후 동·서독 통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창설 등 정치적·경제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냉전체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신냉전의 국제질서,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다시말해, 냉전기 동아시아에서는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벌어졌고 탈냉전 이후에도 유럽과 같은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중핵(中核)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는 이른바 ‘아시아의 역설(asia Paradox)’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³⁾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으로 한반도에는 일시적인 광복(光復)이 찾아왔지만 전후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해방공간에는 군사적 분단선이 가로놓였다.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가장 큰 흐름은 탈식민주의(脫植民主義)였으나 한반도에서는 일제(日帝)로부터의 해방이 자주독립국가 건설로 연결되지 못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현대사는 전후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세 차례의 분단상황을 맞이해야만 했다. 첫 번째 분단선은 해방 직후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한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 미국이 획정한 38도선이었다. 두 번째 분단선은 탈식민주의에 기반한 민족통일국가 건설에 실패한 남·북한이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1민족 2국가 체제를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정치적 분단선이다. 세 번째 분단선은 1,129일 간 치러진 6.25전쟁 이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한반도를 분단국가로 구조화시킨 정전협정(停戰協定, Korean Armistice Agreement) 체제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흔(傷痕)은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으며, 전후 국제질서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쳐 최근 10년 간 신냉전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인 역사(history in the making)’라고 할 수 있으며, 전쟁의 결과가 20세기 이후의 국제질서와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조화하였다. 특히, 전쟁의 결과와 여파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국면사(局面史) 또는 구조사(構造史)라고 할 수 있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종전 80주년

3) Robert A. Manning, “The Asian Paradox—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Review*, Vol. 10, No. 3, Fall 1993, pp.55-64. 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모순되는 안보적 긴장상태가 존재한다는 ‘아시아의 역설적 상황(Asian paradox)’을 지적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확대되어 왔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군사적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Manning은 이러한 아시아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전후 형성된 양자관계를 넘어 다자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개별국가의 다양한 정치체제와 경제모델을 탄력적으로 통합하는 유연하고 균형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기원과 원인』, 파주: 나남, 2016, pp.63-68. 이 책에 따르면, 소련군은 한반도에 미·소 양국의 군대가 분할 진주하기로 결정한 ‘일반명령 1호’를 수용하여 1945년 8월 24일 평양에 처음으로 진주했으며, 9월 중순까지 거의 모든 북한지역을 점령했다.

5)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 세계의 시간』, 서울: 까치, 2024, pp.94-120. 프

을 맞이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책 속에만 존재하는 활자(活字)화된 역사가 아니며,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이해하고 미래전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복기(復棋)해야 할 ‘살아있는 역사(living history)’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건국과 6.25전쟁, 분단체제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여전히 중요한 국면사·구조사로 작동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함의를 현재사(現在史, continuing history)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⁶⁾

II. 이론적 논의

1.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

최근 심화하고 있는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다중전쟁(multiple war)의 시대에 국가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명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대별로 특수한 상황적 맥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제질서의 흐름, 전쟁의 패러다임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은 불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이론적 패러다임과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어 왔다. 국제정치학은 크게 현실주의(Realism), 자유주의(Liberalism), 구성주의(Constructivism)라는 분석의 틀로 국가안보의 본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군사학의 경우에도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정치·군사적 연속성의 개념을 포함하여 전략·전술, 전쟁의 양상과 패러다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전쟁의 본질을 탐구한다.

랑스 아날학파(Annales School)의 대표적 역사학자인 브로델(Fernand Braudel, 1902~1985)은 이 책에서 역사적 시간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층위로 설명했다. 첫째, 사건사(事件史, Event history)는 전쟁과 혁명 등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개념이다. 둘째, 국면사(局面史, Conjunctural history)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흐름과 구조적 변화 및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산업혁명, 유럽의 근대화, 냉전체제, 세계화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다룬다. 셋째, 구조사(構造史, Structural history)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같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역사적 흐름과 구조적 패턴을 다루는 개념이다. 본 고에서는 전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냉전체제, 탈냉전 이후 신냉전으로 이어지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성격을 국면사로 인식함과 동시에, 전쟁의 여파가 전후 80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구조사적 의미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 6) 에릭 홉스봄, 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과주: 한길사, 2022, p.82. 영국의 역사학자인 홉스봄(Eric Hobsbawm, 1917~2012)은 당대의 현재사(contemporary history)를 장기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은 시대를 넘어서는 지속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본 고에서는 홉스봄의 견해를 참고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도 전쟁의 결과가 전후 80년 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사(現在史)의 의미를 ‘continuing history’의 개념으로 기술하였다.

국제정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 속에 내재된 불변적 속성을 간략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주의적 관점을 살펴보면, 모겐소(Hans Morgenthau)는 “국가는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자이며, 국가 간 상호작용에서 권력투쟁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⁷⁾ 또한 구조적 현실주의를 확립한 왈츠(Kenneth Waltz)는 “무정부상태(anarchy)를 속성으로 하는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은 생존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며, 자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자구책(self-help)을 모색하는데 그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⁸⁾ 현실주의 패러다임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권력(power), 즉 물리적 힘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체제를 일종의 무정부상태(anarchy)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행위자들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할 수 밖에 없다고 가정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국제정치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다음으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전쟁의 불변적 속성을 살펴보면,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과 상호의존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로크(John Locke)는 『통치론』에서 자연상태의 인간을 고찰했으며 시민정부의 기원과 범위, 목적 등을 제시하였다.⁹⁾ 로크는 생명과 자유, 재산권 등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했던 로크는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여 근대 정치사상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현대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또한 칸트(Immanuel Kant)는 『영구평화론』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평화를 촉진시키고 전쟁의 위기를 중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상업적 정신(commercial spirit)’을 강조했다.¹⁰⁾ 다음으로 코헤인(Robert Keohane)은 국제질서가

7) Hans J. Morgenthau and Kenneth W.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7, pp.4-17, 187-197. 모겐소는 국가생존을 위한 권력투쟁에서 세력균형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주권국가들이 추구하는 세력균형은 국제관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기제라고 강조했다.

8)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pp.102-113. 왈츠는 무정부적인 질서하에서 국제정치의 현실은 국가 간의 접촉이 갈등을 유발하고 동시에 폭력적 상황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특히, 갈등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상위의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의 사용을 회피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체제의 구성단위체인 국가행위자들은 자구(self-help) 체제를 필연적인 행동원리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국가안보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9) John Locke, 강정인·문지영 옮김, 『통치론』, 서울: 까치, 2007, p.11.

10) 이매뉴얼 칸트, 이한구 옮김, 『하나의 철학적 기획, 영구평화론』, 서울: 서광사, 2008, p.56.

패권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국제규범과 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상호의존성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했다.¹¹⁾ 한편, 아이켄베리(John Ikenberry)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그 역사적 과정을 규명했다.¹²⁾ 아이켄베리는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범이 창출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전후 국제질서 구축의 메커니즘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힘이 아닌 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국제협력과 제도 및 규범의 역할을 강조하며,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국제정치에서 국가행위자들이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인식하는 정체성(identity)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중요한 변수로 간주한다. 즉, 구성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국가행위자 간의 갈등과 협력이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며,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구성주의 패러다임도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수용한다. 즉, 구성주의자들은 국가행위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물질적 변수뿐만이 아니라 규범과 정체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구성주의의 대표학자인 웬트(Alexander Wendt)는 국제체제가 무정부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는 주관적 인식과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¹³⁾ 다시말해, 국가들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대적 또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갈등의 성격과 본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웬트도 국제체제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인정했으며, 이는 국가행위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는 국가 간의 인식과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며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또한 국가행위자들이 상대국가를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할 때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이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은 국제정치 패러다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저변에 깔려있는 기본가정들은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주의는 권력투쟁과 생존의 추구를 강조하며, 전쟁이 국가행위자 간 갈등의 불가피한 결과라

11)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1-109.

12) G. 존 아이켄베리, 강승훈 옮김, 『승리 이후: 제도와 전략적 억제 그리고 전후의 질서구축』, 서울: 한울, 2008, pp.385-414.

13)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pp.394-406.; Alexander Wendt,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Summer 1995, pp.73-81.

는 관점을 갖는다. 자유주의는 협력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으며, 다만 제도의 실패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구성주의는 국가 간의 정체성 인식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행위자 간 ‘상호주관적 인식’에 따라 우호적 또는 적대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이와 같이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주류적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학의 관점에서 전쟁의 본질을 간략히 살펴보면,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이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며, 다른 수단으로 하는 정치의 연장”임을 강조했다.¹⁴⁾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적 도구라는 점을 지적했다. 클라우제비츠는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전쟁의 성격이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쟁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찰했던 것이다. 이러한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은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도 여전히 생명력을 갖는다. 모든 국가행위자들은 필연적으로 자국의 생존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질은 제2차 세계대전기를 포함하여 현 국제질서를 관통하는 불변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현대 정치사상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 홉스(Thomas Hobbes)와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유를 인간의 변하지 않는 본성에서 발견했다. 먼저 사회계약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홉스는 『리바이어던(Leviathan)』을 통해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외부에는 항상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존재하며, 전쟁상태라는 것은 전투의 연속이 아닌 전쟁을 수행하려는 경향이 상존하는 상태”라고 규정했다.¹⁵⁾ 홉스는 국가행위자 간의 관계도 이러한 자연상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생존과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The Prince)』에서 이른바 ‘조직화된 비르투(Ordinata virtù)’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제시했다.¹⁶⁾ 마키아벨리는 자국의 군대를 갖지 못하면 위기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할 수 없으며, 군대를 유지하고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외세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

14)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옮김, 『전쟁론(Vom Kriege)』, 서울: 갈무리, 2023, pp.79-105.

15) Thomas Hobbes, 최공웅·최진원 옮김,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2016, p.131.

16) Niccolò Machiavelli, 곽차섭 옮김, 『군주론: 군주국에 대하여』, 서울: 길, 2016, p.233.

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은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인간의 본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전쟁의 본질을 설명해 준다.

한편, 미국의 정치학자인 라이트(Quincy Wright)는 『전쟁의 연구(A Study of War)』에서 전쟁이 정치적 갈등과 권력투쟁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전쟁의 양상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쟁이 국제관계의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토대로 국제정치학·사회학·역사학적 차원에서 전쟁 관련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라이트는 전쟁이 하나의 단편적 원인에 의해 촉발되지 않고 보다 다차원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전쟁은 “사회적·기술적·심리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변수들 간의 관계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¹⁷⁾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은 당대의 국제정세와 세력균형, 진영 간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불균형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전쟁이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맥락은 오늘날의 국제정치 현실에서도 적용되는 본원적 속성이다. 최근 다중전쟁으로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큰 틀에서 보면 라이트가 제시한 것처럼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맥락과 갈등 속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발생했다.¹⁸⁾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갈등 요인들이 국제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이 갖는 불변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존의 연구동향과 흐름

제2차 세계대전기에 연합국과 추축국의 교전은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경쟁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유럽에서 촉발된 분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전쟁은 장기소모전으로 전환되었고, 주요 교전국들의 전쟁지속능력은 국가별 전쟁수행 전략과 전시 산업능력, 군사력 운용 등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다. 각 교전국들은 총력전 체제하에서 국가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과 산업능력을

17) Quincy Wright, *A Study of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p.351-360.

1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이강경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고찰: 케네스 왈츠의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5권 제3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2.9월, pp.1-35.; 이신욱,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고찰: 세력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5권 4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2, pp.101-130.; 김도희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30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11.14., pp.1-23.

총동원하여 전시체제를 가동하고 장기전을 수행했다. 당시 전황은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각 교전국별로 특수한 정치·문화적 환경과 경제적 여건 등을 토대로 어떻게 전시체제를 효과적으로 가동했는지에 따라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밀워드(Allan Milward)는 제2차 세계대전기 영국의 전쟁수행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전략적 융합(strategic synthesi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¹⁹⁾ 밀워드는 영국이 개전 초기의 불리한 전황을 뒤엎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단순히 군사적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심리적 요인들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밀워드는 제2차 세계대전기 영국의 전시경제정책과 군사전략을 ‘전략적 융합’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전략적 융합’은 전시 영국의 전쟁지속능력이 군사전략과 정치적 의사결정, 경제적 자원관리 등 전쟁수행 관련 정책적 요인들의 융합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었다. 밀워드는 영국이 가용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미국, 소련 등 주요 연합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으며,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기 각 교전국들이 가동했던 전시체제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요인들이 다차원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밀워드가 제시한 전략적 융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경제사학자인 해리슨(Mark Harrison)은 제2차 세계대전이 국가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전개된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각 교전국들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전쟁사를 이해하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슨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패요인과 관련하여 연합국들이 전투원의 사기와 생존성을 높이고 전쟁지속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축국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전쟁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략·전술, 군사력 등이 유사하다고 가정했을 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전쟁지속능력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해리슨은 연합국들이 전시생산체제의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장기전의 총력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²⁰⁾

한편, 오버리(Richard Overy)는 『연합국은 어떻게 승리했는가(Why the Allies Won)』

19) Allan S. Milward, *War, Economy and Society, 1939~1945*, London: Allen Lane, 1977, pp.18-54. 이 책에서 밀워드는 전략적 융합을 전시 총생산 개념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설명했다. “ $x = p + r + s + e \cdot f$ ” (x 는 총생산, p 는 평시 국가총생산, r 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금, s 는 평시의 자본대체율을 유지하지 않으므로써 얻을 수 있는 비축자금, e 는 국가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가용자원, f 는 행정적 마찰로 인한 효율성 감소를 뜻하는 계수이다).

20) Mark Harrison, “Why the Rich Won: Economic Mobi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wo World War,” Research Paper to the Conference organized by the French Ministry of Defence, October 2004, p.4.

라는 저술을 통해 연합국의 승리요인을 전쟁지속능력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²¹⁾ 오버리는 총력전의 관점에서 연합국의 효과적인 자원 동원과 전시 산업 역량이 전쟁 승리에 기여한 요인을 크게 4가지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총력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시경제체제로의 효과적인 전환이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미국과 영국, 소련을 주축으로 한 연합국은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신속히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자원을 총동원했으며,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병기고’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전시생산체제를 가동했으며, 항공기와 전차, 함정, 탄약 등 각종 무기체계와 군수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연합국에 지원했다. 오버리는 연합국의 전쟁지속능력이 총력전을 지속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둘째, 연합국의 전시경제는 효율성과 혁신의 측면에서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가동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Ford)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시 긴급 수요에 맞춰 생산라인을 조정하였고, 맞춤형 생산체제를 가동함으로써 단기간에 대규모의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오버리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이 비효율적인 전시경제로 인해 대량생산체제를 가동하지 못했으며, 결국 장기소모전으로 전환된 총력전에서 연합국의 전력 우위를 상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셋째, 연합국은 전시 인력동원의 측면에서 여성과 소수 민족 등 가용 인력을 산업현장에 대규모로 동원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오버리는 전시 인력동원이 전시생산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전시경제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넷째, 자원의 전략적 활용 차원에서 연합국이 석유, 철강, 천연 고무 등 핵심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이다.

오버리는 제2차 세계대전기에 연합국들이 전략자원의 수급과 전시생산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전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버리는 연합국이 추축국과의 경쟁에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암호해독, 전술·전략폭격, 제해·제공권 장악, 원자폭탄 개발 등 기술적·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전시 연합국은 첨단 과학기술의 혁신 측면에서 항공모함과 전투기, 전차 등 고성능의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추축국의 화력과 기동성을 능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B-29 폭격기와 영국의 스피트라이어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오버리는 연합국이 적의 암호체계를 해독하고 독일과 일본에 대한 장거리 전략폭격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추축국의 전략적 기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전쟁지속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1) Richard Overy, *Why The Allies Won*, London: Pimlico, 2006, pp.220-299.

Ⅲ.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함의 고찰

1. 제2차 세계대전의 경제사적 평가

종전 8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준거점(Reference Point)으로 인식되고 있다.²²⁾ 밀워드(Allan S. Milward)는 제2차 세계대전기 주요 교전국들의 전시 경제정책과 사회적 변화에 주목하여 전쟁이 각국의 경제구조와 생산방식, 그리고 전후 세계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²³⁾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이 교전국들의 경제적·사회적 구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경제적 압력이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시스템과 생산성의 극적인 변화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밀워드는 전쟁의 경제사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전시 경제 정책과 그것이 초래한 사회적 결과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전쟁의 경제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밀워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총력전(Total war)이었다고 규정하였고, 전후 세계의 경제적 구조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총력전은 국가 간 군사적 충돌을 넘어, 주요 교전국들이 국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기술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전후 현대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시 총력전 체제하에서 전쟁의 목표는 단순히 적국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적국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결속력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전시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교전국들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전시생산체제를 효과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밀워드의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으며, 전쟁이 현대 경제사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경제사를 심도있게 연구했던 해리슨은 제2차 세계대전이 국가별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개된 총력전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교전국들의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역사적 관점에서 전쟁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리슨은 제2차 세계대전기에 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한 국가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전후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전시 경제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²⁴⁾ 해리슨은 미국과 영국, 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

22) 조슈아 골드스타인·존 피브하우스, 김연각 옮김, 『국제관계의 이해』, 교양: 인간사랑, 2015, p.68.

23) Allan S. Milward, 앞의 책, pp.1~395.

의 전시 동원체제와 생산력 강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것이 전쟁지속능력 발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미국의 대규모 군사원조와 연합국들의 협력체제가 전쟁수행 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미국의 군수산업 발전과 동원시스템의 작동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미국이 전후 국제질서를 주도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분석했다. 해리슨은 전쟁의 경제사적 측면이 전후 국제질서와 오늘날의 안보환경에 미친 구조적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은 6년 간 지속된 총력전으로서 각 교전국들의 경제구조를 장기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해리슨은 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전후 경제구조의 변화가 현 국제질서와 글로벌 경제시스템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둘째, 총력전 개념의 전쟁수행이 경제적 동원과 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이러한 교훈은 현대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전시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해리슨은 전후 형성된 국제기구와 협력시스템이 오늘날의 글로벌 안보환경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경제사가 현 국제질서와 글로벌 경제체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구조사적 함의

대한민국은 일제의 압제와 식민지 해방, 6.25전쟁과 분단체제라는 현대사의 굴곡을 헤쳐오며 세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온 국가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단순한 전쟁사를 넘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다. 전후 80년이 지났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전쟁의 유산은 여전히 현재의 국제질서를 규정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 패권경쟁, 진영 간 대결구도 등으로 상징되는 신냉전(New Cold War)²⁵⁾의 국제질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사는 우리 시대의 국면사를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구조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현재사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아야 할 전쟁사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단의 시대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평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구조화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복기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냉전의 흐름이

24) Mark Harrison, *The Economics of World War II: Six Great Power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1~307.

25) 신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냉전체제와 차별화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를 의미한다. 신냉전은 아직까지 학문적 개념이 확립되지는 않았으며, 국제정치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층적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가속화하고 있는 복합경쟁의 시대에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갖는 구조사적 함의를 안보적·군사적·기술적 관점에서 간략히 짚어보겠다.

먼저 안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확립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당시 연합국과 추축국은 사활을 건 총력전을 수행했으며, 전쟁의 결과 19세기 이후 국제질서를 지배해 온 제국주의 시스템이 종식되었다. 또한 모든 교전국들은 국가안보의 필수요건으로서 전통적인 군사력과 함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가안보관의 확립은 냉전시대에 이념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추동했으며,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전후 국제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유산은 여전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탈냉전 이후 강대국들의 국제정치와 신냉전기의 다극적 국제질서는 세력균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형성된 국제질서에서 비롯된 특징이기 때문이다. 전후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소련은 이념적·군사적 대결을 가속화하며, 약 40년 간 지속된 냉전체제를 이끌었다. 냉전시기 강대국 간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특징으로 전개되었던 국제질서는 탈냉전 이후 새로운 지역 패권국의 출현과 함께 신냉전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2001년 9·11테러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전략경쟁은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핵심변수가 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²⁶⁾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전후 세계질서는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른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RBIO)’를 구축하기 위해 대서양 헌장에 기초하여 창설된 유엔을 시작으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창설되었다. 냉전시대에 출범한 국제기구들은 탈냉전 이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제평화와 안정, 경제발전, 갈등의 예방과 분쟁관리 등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기제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대두되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탈세계화의 기조 속에서 주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자국 우

26) 다자주의 관련 논의는 Robert O. Keohane,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 45, No. 4, 1990, pp.731-764.; John G.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 Summer, 1992, pp.561-598.을 참조하기 바람.

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다. 특히, 국제질서의 행위자가 보다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확산되었으며, 미국 중심의 일방적 패권질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다극적 질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다중전쟁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후 국제질서 규범인 알타체제²⁷⁾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환기적 국제질서 속에서도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필수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군사적 관점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별 총력전 개념으로 전개되면서 전쟁의 본질과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연합국과 추축국들은 전통적인 전쟁수행 방식에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총력전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전쟁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현대전의 양상과 특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독일의 경제사학자인 쾰바르트(Werner Sombart)는 전쟁이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라는 당대의 인식에 물음표를 던졌고, 오히려 전쟁이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²⁸⁾ 첫째, 역사적 관점에서 전쟁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괴하고 발전을 억제했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의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주의 발전의 조건들이 전쟁을 통해 충족되었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쾰바르트는 18세기 이후 유럽의 근대국가 출현이 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국가의 핵심기능인 행정과 재정시스템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군대 조직의 확대와 자본 축적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전쟁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거대 자본이 형성되었고 경제적 상업화가 촉진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거액의 보상금이 유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대되었던 무기체계의 생산 수요가 철강·화학 등 산업발전에 필요한 공업화를 촉진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개념은 무장투쟁을 넘어 총력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되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모든 가용자원과 산업력을 총동원하여 국가의 전쟁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다. 총력전 체제하에서 전쟁의 승패는 더 이상

27) 백승욱,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제135호, 비판사회학회, 2022년 가을호, p.209. 이 논문에 따르면, 알타체제는 “민족국가 발전의 길을 통한 탈식민주의적 틀을 전제로 삼고 이를 위해 냉전 진영 대립에 기반한 세력권 유지, 국제적 경제통합과 자유기업주의, 주권국가 공동체 등을 원리로 작동되어 온 국제질서”를 의미한다.

28) 베르너 쾰바르트, 이상률 옮김, 『전쟁과 자본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2019, pp.8-160.

전투적 승리로 결정되지 않았다. 전쟁의 향배는 효과적인 군사전략과 전술을 기반으로 치명성을 가진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고 전시생산체제를 가동하여 전쟁지속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총력전 태세에 따라 좌우되었다. 전시 기술혁신은 전후 자본주의 체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터넷과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군사기술의 발전은 민간부문으로 이전(spin-on)되어 생산성 향상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과학을 선도하는 하이테크 기술들이 군수산업으로 이전(spin-off)되어 전장의 승수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전은 기술과 정보가 융합하면서 한층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과 같은 비대칭 개념의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기에는 연합국과 추축국의 전면적 대결에서 동맹체제의 중요성이 실증적으로 대두되었다. 미국과 영국, 소련 등 연합국은 추축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기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했으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전시회담을 개최하여 전쟁수행 전략을 논의하고 전승의 방향을 모색했다. 전시 연합국들은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전후 냉전기를 거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의 결속으로 이어졌다. 탈냉전기에도 우적(友敵) 개념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은 중요한 기제로 존속했다. 특히,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가치를 중심으로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states)의 이합집산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진영 간 가치동맹이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군사적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전쟁의 패러다임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구조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관점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은 기술혁신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준 전쟁사였다. 전시 연합국과 추축국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장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기술적 혁신은 오늘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는 항공기와 전차, 잠수함, 레이더 등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성능개량이 이루어지면서 군사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전차와 장갑차의 발전은 지상전의 개념과 전술을 변화시켰으며, 항공기와 군함은 전장 영역을 해상·공중으로 확대시켰다. 또한 항공모함과 잠수함이 발전하면서 현대전에서 해군력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원자폭탄의 개발이었다. 핵무기는 전쟁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히로시마(広島)와 나가사키(長崎)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폭탄으로 아시아·태평

양 전쟁은 종지부를 찍었고 일본제국주의도 패망했다. 이처럼 가공할 위력을 가진 핵무기는 냉전시대에 ‘억제(deterrence)’라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만들어냈으며,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기 연합국과 추축국이 주도했던 기술적 진보와 혁신은 전후 첨단 과학기술의 초석이 되었고 새로운 무기체계는 군사전략을 변화시키는 핵심수단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영 연합군이 역점을 두었던 암호해독과 정보전 관련 기술은 전장공간이 다영역(multi-domain)으로 확장된 현대전에서 사이버전으로 발전했다. 태평양과 대서양 전선에서 추축국의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은 연합국의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의 정보전 개념은 오늘날 사이버전과 전자전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최근 전장공간이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사이버·우주영역으로 확대되고, 전장영역이 군사적·비군사적 수준과 물리적·비물리적 범위를 교차하는 등 현대전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태동했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IV. 제2차 세계대전의 현재사적 의미와 한반도 안보

1. 전쟁의 추체험(追體驗)과 현재사적 의미

유럽 동부전선에서 치러진 독·소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맥락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금 고찰하는 것은 추체험(追體驗, re-enactment)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종전 8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도 한국군이 분단체제라는 장기지속의 구조사 속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현존 군사위협과 미래전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쟁의 역사를 추체험한다는 것은 해석학적인 방법론으로서 ‘이입, 현재화, 상상력’의 과정을 통해 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 직면한 안보이슈들을 풀어나가는 해법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²⁹⁾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해방

29) 신진욱, “삶의 역사성과 추체험: 딜타이의 의미 이론과 해석학적 재구성 방법론,” 『담론 201』 제12권 1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09, pp.119-126. 이 논문에 따르면, 추체험은 독일의 철학자인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가 제시한 개념으로 3가지 주요 인식활동은 ‘① 이입, ② 현재화, ③ 상상력’이다. 이입은 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고, 현재화는 당대의 구조적 환경을 파악하는 인지과정이며, 상상력은 타자의 경험을 추체험자의 삶에서 재구성해보는 시도이다.

을 맞이할 수 있었고 유엔의 지원 하에 정부를 수립했다. 6.25전쟁기에는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지 34주년이 되는 2025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위협,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함과 동시에 핵탄두를 소형화·경량화하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했으며,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을 전력화하는 등 한반도의 작전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약 80년 전의 제2차 세계대전사를 현재사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당대의 역사를 추체험함으로써 현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오늘날의 국제질서와 안보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유산(遺産)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현재의 안보환경을 효과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했던 홉스는 국제관계의 본질을 날씨와 시간의 특성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³⁰⁾ “한 두 차례 내리는 소나기가 아니라 수 일에 걸쳐 비가 오락가락할 때 날씨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본질 역시 실제적인 전투행위에 있지 않고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의 여부,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그 밖의 기간이 평화로운 시간이다.” 오늘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은 홉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체제의 무정부적 속성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추체험의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저명한 전쟁사학자인 오버리는 제2차 세계대전사를 전략적·경제적·정치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전쟁사를 해석하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현재사적 의미와 연계하여 오버리가 제시한 전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³¹⁾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은 철저히 산업화된 전쟁이었으며, 주요 참전국들은 국가총생산의 3/4을 전쟁수행에 투입하였다. 전쟁 발발 이전에 새로운 산업분야로 등장했던 항공기·자동차·화학공업은 전투기와 전차, 탄약 등 핵심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군수산업 인프라로 신속히 전환되었으며, 전후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³²⁾

30) Thomas Hobbes, 앞의 책, p.131.

31) 찰스 톤젠드, 강창부 옮김, 『근현대 전쟁사』,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3, pp.194-196.

32)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 서울: 청미디어, 2016, p.142. 군산복합체는 “제2차 세계

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기에는 국가가 인적·물적 자원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총력전 체제를 가동했다는 점이다. 전쟁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시생산체제는 현대전에서도 전쟁지속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이후의 역사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남긴 전쟁사이며, 따라서 전후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은 전세계적인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쳤으며, 한반도의 역사에서는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맥락을 구조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안보에 시사해주는 현재사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결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한반도에는 광복이 찾아왔지만, 약 한 달간의 시차를 두고 분단상황이 초래되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한반도는 36년 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었으나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여 점령했으며, 그 결과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어졌다. 미·소 양국의 군대가 남한과 북한에 주둔하면서 군정통치가 시행되었고,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1948년에는 남과 북이 단독정부를 수립하였다. 해방공간에서 직면하게 된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지리적 양분을 넘어 보다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졌다. 정치적 분단은 이념적 갈등과 민족적인 분열을 야기했고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전후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고착화시켰으며, 오늘날까지도 군사적 대립과 갈등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전쟁의 위험 속에서 팽팽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일문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결과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조화하고 존속시켜 준 현재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가 개막되면서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한반도 분단체제가 고착되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약 5년 만에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했고 3년 간의 분쟁 끝에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반도에는 분단상황이 초래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적 분단상황은 6.25 전쟁이라는 역사적 참화(慘禍)로 이어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군부와 독점적 대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의존하는 체제”를 뜻한다.

승인과 중국의 지원 하에 남한의 적화통일, 영토완정(領土完整)³³⁾을 목표로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냉전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6.25전쟁은 약 1년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으며, 중공군의 개입 이후 전선이 교착된 상황에서 약 2년 동안 지나간 휴전협상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최전선을 중심으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수복하기 위한 고지쟁탈전이 펼쳐졌으며, 유엔군을 포함하여 수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다. 1,129일간 치러진 6.25전쟁은 한반도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전쟁 기간 중에 약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분단의 고착화라는 아픈 역사를 남겼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 불완전한 평화를 가져왔다.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체제가 형성됨으로써 전후 한반도는 ‘상태로서의 전쟁’이 지속됨과 동시에 오늘날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이러한 현대사의 굴곡 속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의 해방과 전쟁,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분단체제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구조사인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냉전체제가 형성되었고 탈냉전 상황을 맞이했지만 대립의 논리는 신냉전의 국제질서로 부활했다는 점이다. 과거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냉전의 한복판으로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도 진영 간 단층선이 뚜렷해지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된 미·중 전략경쟁이 최근 ‘관리된 경쟁’ 양상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은 한층 가열되고 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창설 100주년을 맞이한 인민해방군의 군사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으며, 향후 5년 간의 현대화계획을 발표했다.³⁴⁾ 2022년 12월, 일본은 3대 국가안보문서에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침을 명시했으며, 반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비를 인상하고 군사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³⁵⁾ 한편, 신냉전의 기류에 편승한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2022

33)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결정과 발발』, 서울: 나남, 2023, pp.91-101. 이 책에 따르면, 1948년 9월 10일 김일성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첫 번째 정강에서 국토의 완정(完整, 완전한 정비)과 민족통일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34) 이강경,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시사점 고찰: 주변국의 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신아시아』 제30권 3호, 신아시아연구소, 2023년 가을호, p.42.

35) 이강경,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 고찰,” 『한국군사학논총』 제12집 제2권, 미래군사학회, 2023. 6.30, pp.83-108.

년 핵 독트린을 발표하였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했다.³⁶⁾ 특히, 2023년 이후에는 전술핵부대 운용방침을 공개하고 무인기 도발을 감행하는 등 한반도 작전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는 진영 간 대결구도를 더욱 공고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6월 북·러 간 체결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과 북한의 대러 군사지원 사례는 이러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³⁷⁾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실존적 군사위협을 억제해 나가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2. 제2차 세계대전의 현재사가 한국의 안보에 주는 시사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국제질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군비경쟁으로 점철된 냉전시대가 전개되었다. 이후 탈냉전기를 거치며 잠시나마 평화의 시대를 구가했으나, 탈세계화(degloabalization)의 흐름 속에서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심화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2월 촉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10월 중동에서 벌어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향후 복합경쟁 양상으로 전개될 다중전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발화된 다중전쟁의 특징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분쟁양상이 군사적·비군사적, 물리적·비물리적 영역의 구분없이 전개됨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유럽의 전쟁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동의 지역분쟁에는 이른바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³⁸⁾으로 상징되는 반서방 연합전선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지역 간 연계성이 매우 높

36) 이강경,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와 시사점 고찰,” 『한국군사』 제15집,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4.6.30., p.161.

37) 통일뉴스, “북,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전문 발표,” 2024.6.20.,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1>.(검색일: 2024.9.2).

38) 강봉구,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제휴?: 시리아 내전 개입의 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6.11월, p.17.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이라크·이스라엘에 공동으로 대항하기 위해 이란과 시리아는 ‘저항의 축’이라는 연합전선을 형성해 왔다.: 성일광, “세계경제에 악재된 중동분쟁, 종결되더라도 영향 클 것,” 『나라경제』 2023년 12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p.20. 이 글에서는 이란의 대리조직으로 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② 예멘 후티 반군, ③ 시리아·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④ 레바논 헤즈볼라를 반이스라엘 투쟁에 연대하는 ‘저항의 축’으로 제시했다.

으며, 동아시아의 지역분쟁으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정학적 갈등지대에 놓여 있는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제3의 국제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1949년 중국 공산화와 1950년 6.25전쟁으로 냉전체제가 구조화된 이후 대만해협과 한반도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대분단체제’³⁹⁾는 오랫동안 국제분쟁의 잠재적 발화점(flash point)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다면 신냉전 시대의 현재사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우리가 추체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크게 2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중전쟁의 시대에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그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대외 안보환경의 가장 큰 특징은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 다중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⁴⁰⁾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조성된 복합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이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고(三高) 현상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복합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른바 복합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분쟁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중동의 지역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지구촌의 복합경쟁은 매우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경쟁은 다중전쟁의 시대에 안보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먼저 경제적 차원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중심으로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EU 등 글로벌 경제주체들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국의 산업과 경제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세계 분업체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유럽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극우정당의 집권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국제체제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극우세력들은 ‘대중융합정치’를 뜻하는 포퓰리즘(populism)에 기대어 이민자 문제와 경제 양극화, 국가별 정체성 위기를 부각시키며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다극적 질서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면서 국제질서의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5G 등 첨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39) 이삼성(2006), 앞의 논문, p.59. 이 글에서는 “①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②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중국과 대만의 분단이 2개의 소분단체제를 형성하며, 중국대륙의 동해안선을 따라 한반도의 휴전선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아시아 분단선’이 그려진다”고 규정했다.

40) 아산정책연구원, 『ASAN 국제정세 전망 2023: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22.12월, pp.1-136. 복합경쟁은 정치·경제·과학·외교·군사 등 전영역에서 전개되는 경쟁양상이다.

본 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도 단순히 지역별로 전개된 전쟁을 넘어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기술적 경쟁이 복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 벌어진 물리적 전투뿐만 아니라, 연합국과 추축국이 가동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된 기술경쟁, 국내전선(home front) 등 국가 총력전 태세에 의해 좌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병기고(arsenal of democracy)’임을 자처하고 강력한 전시생산체제를 바탕으로 군수품을 대량 생산하여 동맹국들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연합국과 추축국이 전개했던 경쟁적 상황은 오늘날의 복합경쟁 환경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복합경쟁의 안보환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연합국들이 정치·경제·기술분야를 포함하여 다차원적으로 전개했던 경쟁의 논리를 추체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토대로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수용하고 현대전과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과 미래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⁴¹⁾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강력한 게임체인저로 등장했으며, 인지전·사이버전·전자전 등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드론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수색·정찰 및 탐지·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자산으로 전장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는 도시지역 작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새로운 방식의 비정규전 양상이 출현하였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Hamas)는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지하터널을 활용하여 공격하는 비전통적 방식의 전술을 구사하였다. 이에 이스라엘군도 AI와 드론 등 첨단 군사기술과 정보우위를 바탕으로 지상전을 수행하고 있다.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한반도 작전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위기의 시대에 한반도 작전환경은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안보위협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였다.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4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대두된 현대전 양상과 미래전 패러다임 변화 관련 내용은 다음의 연구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송승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드론혁명’가능성 검토,” 『한국군사』, 제14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4, pp.1-37.; 지효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4, pp.153-194.

고도화한 가운데 신냉전의 국제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사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⁴²⁾ 북한은 진영 간 대결구도에 편승하여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 공세적인 대남·대미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이후 체제생존을 넘어 전략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추구하고 북한식 군사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환기적 안보상황과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추체험할 필요가 있다. 전시 연합국이 변화하는 작전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적용했던 경쟁의 논리를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 대입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교훈은 복합경쟁의 시대에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미래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유의미한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해 줄 것이다.

IV. 결론

제2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이후의 전쟁사에서 최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던 가장 비극적이고 참혹한 전쟁이었다. 또한 전지구적 차원의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는 냉전체제로 이어지며 전후 국제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역사적 함의가 큰 전쟁사이다. 약 6년 간의 장기소모전에서 비인도적 폭력이 남긴 역사적 상처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를 거치며 오늘날까지 민족·인종·종교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남·북한의 분단체제가 구조화되었고,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양안갈등이 지속되는 등 전후 안보딜레마가 상존해 왔다. 최근에는 신냉전의 국제질서가 심화하면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가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진영 간 대립과 갈등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war of attrition), 대리전(proxy war) 양상으로 치러지면서 군비경쟁이 한층 가속화하고 있으며, 제3의 분쟁 가능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42) 최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동향 및 군사위협 변화 양상은 다음의 연구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이강경,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북한의 군사위협 고찰,” 『한국군사학논총』 제13집 제2권, 미래군사학회, 2024.6.30, pp.3-28.; 이강경·설현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제32집 2호, 대한정치학회, 2024.5월, pp.149-186.

본 연구에서는 최근 종전 80주년을 맞이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함의를 고찰하기 위해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군사학의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행위자들이 생존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국제질서를 적실성있게 설명해주는 이론이며, 오늘날 신냉전의 국제질서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자유주의적 관점도 국가안보와 전쟁의 불변적인 속성을 수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전쟁의 본질이 권력투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와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패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다시말해, 국제협력의 실패나 제도의 붕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전쟁의 가능성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패러다임도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성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의 적대적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전쟁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전쟁의 불변적 속성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이 국가 간의 정체성 인식과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갈등의 가능성과 위험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구성주의 패러다임도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패러다임과 동일한 인식 구조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군사학과 정치사상의 관점에서도 전쟁의 불변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클라우제비츠는 ‘마찰과 우연’을 주요 속성으로 삼는 전쟁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폭력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전쟁이 단순한 계획과 군사전략으로만 완수될 수 없으며, 다양한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홉스와 마키아벨리는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국가안보의 본질적인 성격과 특징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역사적 관점에서 고대·중세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근·현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의 본질은 현재와 미래에도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와 홉스, 마키아벨리 등 군사·정치사상가들이 제시한 관점들은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이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국가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전쟁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는 이러한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환기시켜 주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의 국제질서와 관련하여도 국가안보와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해 준다.

본 고를 마무리하며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자 한다. 약 80년 전에 전지구적인 범위에서 전개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과 추축국들이 국가 총력전 개념하에서 수행했던 복합경쟁이었다. 특히, 전략·전술폭격, 전격전 등 최신 군사교리를 비롯하여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전쟁지속능력의 상대적 우위를 겨룬 시스템 전쟁이었다. 당시 교전국들은 밀워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제한된 국력과 전쟁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융합 노력을 기반으로 총력전을 수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 연합국과 추축국의 경쟁 논리는 오늘날 복합경쟁 시대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최근 美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美 신행정부의 대외전략이 보편·상호 관세 부과, 그린란드·파나마운하·이스라엘 가자(Gaza)지구 편입 논의 등을 이슈화하면서 新고립주의와 선택적 개입주의를 넘어 新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이른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전략이 강화될수록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미·중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사례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현대전의 양상이 제2차 세계대전기와 유사하게 장기소모전으로 전개되고 드론과 AI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전투수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美 전쟁연구소(ISW)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대전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로 ‘장기전 대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⁴³⁾ 즉, 현대전에서는 한 번의 결정적 전투로 승패를 가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소모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복합경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국방환경의 도전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종전 80주년을 맞이한 202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현재사적 관점에서 다시금 고찰해야 하는 이유이다.

43) Frederick W. Kagan et. al., “Ukraine and the Problem of Restoring Maneuver in Contemporary War,”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August 2024, pp.10-16.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ukraine-and-problem-restoring-maneuver-contemporary-war>(검색일: 2024.11.10). 이 보고서는 현대전의 역사에서 1940년 프랑스 전역과 1991년 걸프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쟁이 한 차례의 결정적인 전투로 종결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방위산업 기반을 확장하여 전쟁지속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문헌

- 강봉구, “러시아와 이란의 전략적 제휴?: 시리아 내전 개입의 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28권 제2호, 2016.
- 군사용어대사전 편집위원회, 『군사용어대사전』, 서울: 청미디어, 2016.
- 김도희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305호, 2023.11.14.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결정과 발발』, 서울: 나남, 2023.
- _____,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기원과 원인』, 파주: 나남, 2016.
- 베르너 쾰프, 이상률 옮김, 『전쟁과 자본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2019.
- 백승욱,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 지정학의 변화,” 『경제와 사회』 통권 제135호, 2022.
- 성일광, “세계경제에 악재된 중동분쟁, 종결되더라도 영향 클 것,” 『나라경제』 2023년 12월호, 2023.12월.
- 송승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드론혁명’가능성 검토,” 『한국군사』 제14호, 2024.
- 신진옥, “삶의 역사성과 추체함: 딜타이의 의미 이론과 해석학적 재구성 방법론,” 『담론 201』 제12권 1호, 2009.
- 이산정책연구원, 『ASAN 국제정세 전망 2023: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 서울: 이산정책연구원, 2022.12월.
- 에릭 홉스봄, 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파주: 한길사, 2022.
- 이강경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고찰: 케네스 왈츠의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5권 제3호, 2022.9월.
- 이강경,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시사점 고찰: 주변국의 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30권 3호, 2023.
- _____, “일본의 재무장 추진동향과 시사점 고찰,” 『한국군사학논총』 제12집 제2권, 2023.
- _____,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와 시사점 고찰,” 『한국군사』 제15집, 2024.
- _____, “신냉전의 국제질서와 북한의 군사위협 고찰,” 『한국군사학논총』 제13집 제2권, 2024.
- 이강경·설현주,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와 국방력 강화 동향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제32집 2호, 2024. 5월.
- 이매뉴얼 칸트, 이한구 옮김, 『하나의 철학적 기획, 영구평화론』, 서울: 서광사, 2008.
- 이삼성,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성격에 관한 일고: ‘대분단체제’로 본 동아시아,” 『한국과 국제정치』 제22권 4호, 2006.
- 이승현, “북,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전문 발표,” 『통일뉴스』, 2024.6.20.
- 이신옥,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고찰: 세력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25권 4호, 2022.
- 조슈아 골드스테인·존 피브하우스, 김연각 옮김, 『국제관계의 이해』, 고양: 인간사랑, 2015.
- 지효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군사적 특징과 한국군에 대한 함의: 하이브리드전쟁의 가능성과 한계,” 『국가안보와 전략』 제24권 1호, 2024.
- 찰스 톤젠드, 강창부 옮김, 『근현대 전쟁사』, 파주: 한울엠플러스, 2023.
- 카알 폰 클라우제비츠, 김만수 옮김, 『전쟁론(Vom Kriege)』, 서울: 갈무리, 2023.
- 칼 슈미트, 김효전·정태호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개념』, 파주: 살림, 2012.
- 토마스 햄스, 최종철 옮김, 『21세기 제4세대 전쟁』, 서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 세계의 시간』, 서울: 까치, 2024.

- 아이칸베리, G. 존, 강승훈 옮김, 『승리 이후: 제도와 전략적 억제 그리고 전후의 질서구축』, 서울: 한울, 2008.
- Harrison, Mark. *The Economics of World War II: Six Great Powers in International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Why the Rich Won: Economic Mobi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wo World War,” Research Paper to the Conference organized by the French Ministry of Defence, October 2004.
- Hobbes, Thomas. 최공웅·최진원 옮김, 『리바이어던』, 서울: 동서문화사, 2016.
- Kagan, Frederick W. et. al., “Ukraine and the Problem of Restoring Maneuver in Contemporary War,”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August 2024. <https://www.understandingwar.org/background/ukraine-and-problem-restoring-maneuver-contemporary-war>(검색일: 2024. 11.10).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Vol. 45, No. 4, 1990.
- Locke, John. 강정인·문지영 옮김, 『통치론』, 서울: 까치, 2007.
- Machiavelli, Niccolò. 박차섭 옮김, 『군주론: 군주국에 대하여』, 서울: 길, 2016.
- Manning, Robert A. “The Asian Paradox—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Review*, Vol. 10, No. 3, Fall 1993.
- Milward, Allan S. *War, Economy and Society, 1939~1945*(London: Allen Lane. 1977).
- Morgenthau, Hans J. and Thompson, Kenneth W.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1997).
- Overy, Richard. *Why The Allies Won*(London: Pimlico. 2006).
- Ruggie, John G.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3. Summer 1992.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79).
-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 _____. “Constructing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Summer 1995.
- Wright, Quincy. *A Study of Wa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 Abstract 】

An Essay on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World War II
: Focusing on the Continuing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8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ar

Lee, Kang Kyong

The year 2025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founding of the United Nations. Historically, ‘war as an act’ ended after the war, but it left behind the spark of conflict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new international order, and as a result, ‘war as a state’ continues to this day, even as we enter a new Cold War. From this perspective, the history of World War II was a conjunctural history that changed the course of history, and at the same time, it can be said to be a rescue history in that the outcome of the wa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tional order and human life after the 20th century. Therefore, the history of World War II can be evaluated as a ‘living history’ and a ‘continuing history’ that must be revived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oday’s international order and preparing for future wars.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World War II, which still operate as an important continuing history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following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the division system, were examined from the present historical perspective. To this end, the structural and present historical significance of World War II was examined, and security factors that must be experienced to find a way to survive in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new Cold War were considered.

Key Words : World War II, Re-enactment, Structural history, Conjunctural history,
Continuing history

• 논문투고일 : 2025년 1월 20일 / 논문심사완료일 : 2025년 2월 13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2월 18일